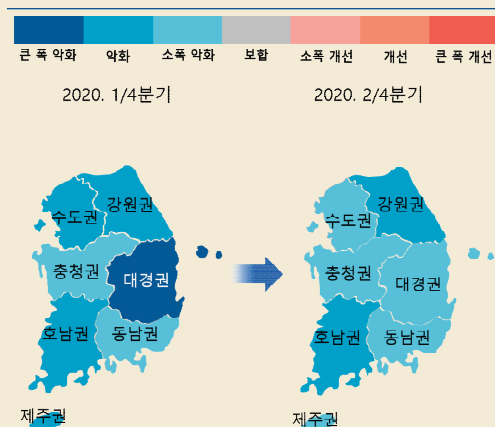


## 최근 지역경제 동향 요약

### 경기 개황

모니터링 결과, 2/4분기 중 지역경제는 코로나19의 영향 지속으로 모든 권역에서 악화된 가운데 전분기에 극심한 침체를 보였던 대경권을 비롯하여 수도권, 제주권의 경기 하락세는 다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 권역별 경기<sup>1)</sup>



주: 1) 권역별로 업체 및 유관기관 등을 모니터링하여 입수한 생산, 수요, 고용 및 금융 동향 등을 토대로 전분기 대비 경기 상황을 종합 판단

향후 권역별 경기는 코로나19의 전개 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나, 수도권, 충청권, 대경권 및 강원권이 소폭 개선되고 나머지 권역은 보합 수준일 것으로 파악되었다.

### 생산

#### (제조업 생산 소폭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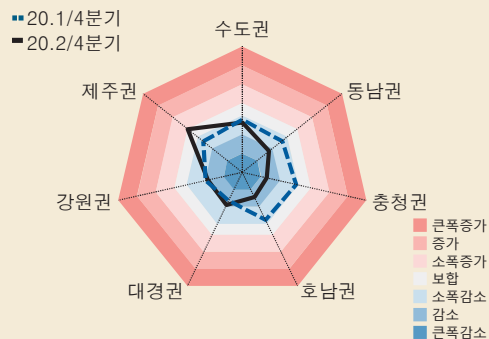
2/4분기 중 제조업 생산은 수도권, 대경권 및 강원권은 전분기 수준의 감소세가 이어졌고 동남권, 충청권 및 호남권은 감소폭이 확대되었다.

수도권은 자동차가 완성차공장 가동 중단 등으로, 디스플레이가 주요 업체의 LCD 생산시설 축소 등으로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대경권은 자동차부품, 철강, 휴대폰 등이 대내외 수요가 급격히 둔화되면서 감소하였다. 강원권은 의료기기가 대면영업 제약 및 글로벌 홍보 차질로, 유제품이 학교 휴교기간 장기화로 급식용 우유 소비량이 줄면서 각각 감소하였다.

동남권은 자동차 및 부품이 수출 급감으로 감소한 가운데 기계장비와 철강도 국내외 전방산업 수요 위축으로 부진하였다. 충청권은 반도체와 화학제품이 각각 모바일 수요 약세 및 가동률 하락 등으로 소폭 감소한 가운데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도 줄어들었다. 호남권은 석유화학·정제가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정제마진 악화로 업황 부진이 심화되었으며 철강과 자동차도 글로벌 수요 둔화로 감소하였다.

한편 제주권은 비알콜음료와 식료품을 중심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 권역별 제조업 생산<sup>1)</sup>



주: 1) 모니터링 정보를 바탕으로 각 권역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지수화(-5~+5)하여 평가한 것임

향후 제조업 생산은 수도권과 대경권이 소폭 증가하겠으나 호남권은 소폭 감소, 나머지 권역은 2/4분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수도권은 미국, 유럽 등의 경제활동 재개로 해외수요가 일부 회복되면서 자동차, 석유화학정제 등을 중심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경권은 휴대폰이 신모델 출시 등으로 완만히 회복되는 가운데 자동차부품, 철강, 섬유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호남권은 석유화학·정제가 보합 수준을 보이었으나 여타 주력업종의 부진으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동남권은 기계장비와 철강이 각각 해외공장 가동 재개, SOC 투자 확대 등으로 소폭 증가하겠으나, 조선이 수주 및 해상 물동량 감소의 영향으로 소폭 감소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조사되었다. 충청권은 디스플레이, 철강,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2/4분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강원권과 제주권도 보합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 (서비스업 생산 소폭 감소)

2/4분기 중 서비스업 생산은 호남권이 소폭 증가로 전환된 가운데 나머지 모든 권역에서는 감소폭이 둔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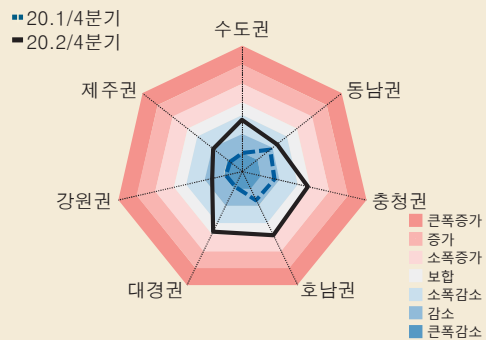
호남권은 코로나19 확산세 진정 및 소비심리 회복 등으로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을 중심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반면 수도권은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으로 국제선 운항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항공운송이 부진하였고, 대면거래 기피로 부동산업도 감소하였다. 동남권은 수출입 물동량 감소에 따른 수송운송의 부진과 주요 국제행사 취소에 따른 MICE산업 부진으로 숙박음식점업이 감소하였다. 강원권은 5월 연휴기간 여행수

요 일시 증가에도 불구하고 외출자제 분위기 지속, 주요시설 휴장 등으로 숙박음식점업을 중심으로 줄어 들었다. 제주권은 내외국인 관광객 급감으로 대형 면세점 및 운수업을 중심으로 감소하였다.

한편 충청권은 정부 및 지자체의 이전지출 확대, 유동인구 증가로 도소매업 및 숙박음식점업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여객 및 선박화물 감소로 운수창고업이 감소하였다. 대경권은 정부의 경기회복 지원책으로 도소매업이 다소 증가했으나 대면거래 기피에 따른 주택거래 위축으로 부동산업이 감소하였다.

### 권역별 서비스업 생산<sup>1)</sup>



주: 1) 모니터링 정보를 바탕으로 각 권역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지수화(-5~5)하여 평가한 것임

향후 서비스업 생산은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강원권이 소폭 증가하겠으나 동남권 및 제주권은 2/4분기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대부분 권역에서 도소매업 및 숙박음식점업이 정부의 이전지출 확대에 따른 소득여건 개선, 내수 활성화 정책 및 여름 성수기에 따른 관광 수요 회복으로, 항공운송이 국내선 수요 회복 및 국제선 부분 재개 등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제주권은 외국인 관광객 감소, 신규 면세점 개장 철회 및 대형 호텔 개장 지연으로 서비스업 회복이 지연될 전망이다.

한편 **충청권**과 **대경권**은 각각 혁신도시 개발 기대감 및 대규모 분양에 힘입어 부동산업의 증가가 예상된다.

## 수요

### (소비 소폭 증가)

2/4분기 중 소비는 동남권, 충청권, 호남권 및 강원권이 소폭 증가하였다. 반면 제주권은 관광업 침체에 따른 소득여건 악화로 소폭 감소하였으며, 코로나19 확진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수도권과 대경권은 전분기 수준에 머물렀다.

제주권을 제외한 **대부분 권역**에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재택근무 및 원격수업 확대로 자동차, 가전 제품 등 내구재가 소폭 늘었다. 또한 정부 및 지자체의 소비 활성화 정책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음식료품, 위생용품 등 비내구재 소비도 증가하였다. 특히 **호남권**은 아파트 입주물량 증가로, **동남권**은 대형 가구매장 입점으로 가구 소비가 늘었다. 한편 **제주권**은 레저용품 등 비대면 여가활동 소비가 일부 회복 조짐이 있었으나 가구, 가전 등 내구재는 큰 폭 감소하였다.

### 권역별 소비<sup>1)</sup>

	수도권	동남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강원권	제주권
20. 1/4	▼▼▼	▼▼	▼▼	▼▼	▼▼▼	▼▼	▼▼▼
2/4	◇	▲	▲	▲	◇	▲	▼

주: 1) 전분기대비 방향성 및 변화 정도를 기호로 표시하였으며 ▲, ◇, ▼는 각각 증가, 보합, 감소를 나타냄

향후 소비는 정부의 내수 관광 활성화 정책 및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소비심리 회복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해 제주권을 제외한 전 권역에서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관광업 의존도가 높은 **제주권**

은 악화된 소득여건으로 인해 소비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파악되었다.

### (설비투자 소폭 감소)

2/4분기 중 설비투자는 호남권 및 제주권이 전분기 수준에 머물렀고 나머지 권역은 감소하였다.

**호남권**은 석유화학·정제 및 철강이 계획된 투자를 이어갔으며, **제주권**은 도소매업이 온라인 배송 설비 구매로 전분기 수준의 투자를 유지하였다.

반면 **충청권**은 자동차 및 철강이 글로벌 수요 감소에 따른 매출 악화로, **강원권**은 숙박업이 관광업황 악화로 계획된 투자를 축소 또는 연기하였다. 또한 **수도권**은 반도체 제조업의 투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디스플레이가 감소하면서, **동남권**은 유가 급락에 따른 조선 및 석유화학·정제업의 감소로, **대경권**은 섬유 및 자동차부품 제조업의 부진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 권역별 설비투자<sup>1)</sup>

	수도권	동남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강원권	제주권
20. 1/4	◇	◇	◇	▲	◇	◇	◇
2/4	▼	▼	▼▼	◇	▼	▼▼	◇

주: 1) 전분기대비 방향성 및 변화 정도를 기호로 표시하였으며 ▲, ◇, ▼는 각각 증가, 보합, 감소를 나타냄

향후 설비투자는 충청권이 소폭 증가하겠으나 동남권 및 제주권은 소폭 감소하고 수도권 등 여타 권역은 2/4분기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충청권**은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가 계획된 투자를 예정대로 진행하면서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동남권**은 대형 조선업체의 투자계획 보류로, **제주권**은 숙박업의 유동성 악화로 감소가 예상된다. 한편 **수도권**은 자동차 및 기계장비가, **호남권**은 석유화

학·정제 및 철강이, **대경권**은 휴대폰 및 자동차부품 제조업이 글로벌 수요 감소 영향으로 투자 규모를 늘리지 못하고 2/4분기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 (건설투자 소폭 감소)

2/4분기 중 건설투자는 동남권, 호남권 및 제주권이 감소하고 수도권 등 나머지 권역은 보합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동남권**은 토목건설이 관급공사 조기 발주의 영향으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주거용 신규 착공이 부진하면서 전체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권**도 광주글로벌모터스 자동차공장 건설 등으로 공공부문은 양호하였으나 재개발·재건축 및 택지개발 사업 지연 등으로 민간부문이 부진하면서 감소하였다. **제주권**은 운송업계 파업으로 주요 공사 착공이 연기됨에 따라 민간·공공부문 모두 감소하였다.

한편 **수도권**은 주거용 건물 부진이 지속되었으나 토목건설이 최근 수주가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보합 수준을 나타냈다. **충청권**은 주거용 건물이 증가한 반면 상업용 건물이 소폭 감소하고 토목건설은 보합세를 유지하였다. **대경권**은 상업용 건물이 부진하였으나 주거용 건물이 다소 회복되고 공공부문도 소폭 증가하였다. **강원권**은 토목건설이 증가하였으나 건물건설은 주택 신규 착공 부진 등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 권역별 건설투자<sup>1)</sup>

	수도권	동남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강원권	제주권
20. 1/4	▼	◇	◇	▼	◇	◇	◇
2/4	◇	▼▼	◇	▼▼	◇	◇	▼▼

주: 1) 전분기대비 방향성 및 변화 정도를 기호로 표시하였으며  
▲, ◇, ▼는 각각 증가, 보합, 감소를 나타냄

**향후 건설투자**는 호남권과 제주권이 소폭 증가하겠으나 수도권과 강원권은 소폭 감소, 나머지 권역은 보합 수준에 그칠 것으로 조사되었다.

**호남권**은 공공부문이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민간부문도 해양관광단지사업에 힘입어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권**은 운송업계 파업으로 지연되었던 공사가 6월 이후 진행되면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수도권**은 토목건설이 재정 조기 집행에 따른 반사효과 등으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건물건설도 주거용, 비주거용 모두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조사되었다. **강원권**도 주거용 건물을 중심으로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

한편 **동남권**은 건물건설이 소폭 증가하겠으나 토목건설은 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반사효과 등으로 소폭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2/4분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충청권**은 주거용 및 상업용 건물이 소폭 감소하겠으나 공공부문은 SOC 관련 예산 집행에 힘입어 증가하고, **대경권**은 상업용 건물이 소폭 감소하겠으나 공공부문이 SOC 투자를 중심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 (수출 감소)

2/4분기 중 수출(전년동기대비)은 동남권과 호남권이 큰 폭 감소하고 수도권, 충청권, 대경권 및 강원권은 감소하였으며, 제주권은 반도체 설계를 중심으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동남권**은 자동차, 기계장비, 철강금속 등 대부분의 품목이 큰 폭 줄어들었으며, 선박도 해외 관계사들의 업무차질 등으로 일부 인도가 지연되면서 감소하였다. **호남권**은 석유화학·정제, 철강,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큰 폭 감소하였다.

수도권에서는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이 큰 폭 감소한 가운데 반도체와 기계장비도 소폭 감소하였다. 충청권, 대경권 및 강원권도 각각 화학제품·철강, 자동차부품·기계장비, 의료기기·화장품 등을 중심으로 감소하였다.

#### 권역별 수출<sup>1)</sup>

	수도권	동남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강원권	제주권
20. 1/4	▼	◇	▲	▼▼	▼	▼▼▼	▲
2/4	▼▼	▼▼▼	▼▼▼	▼▼▼	▼▼	▼▼	▲

주: 1) 전년동기대비 방향성 및 변화 정도를 기호로 표시하였으며 ▲, ◇, ▼는 각각 증가, 보합, 감소를 나타냄

향후 수출은 대부분 권역에서 전년동기대비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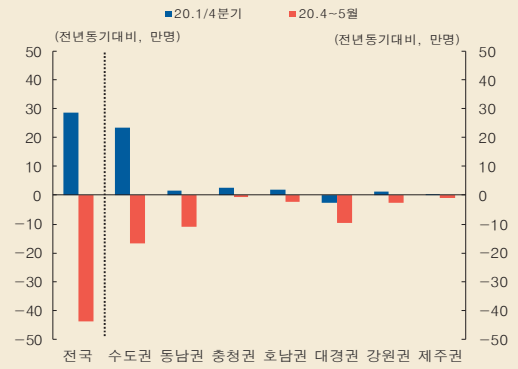
수도권과 호남권은 석유화학·정제품, 철강, 자동차 등의 부진이 지속되며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남권은 북미에서의 영업 재개, 중국의 경기부양 노력 등에 힘입어 자동차, 기계장비 등을 중심으로 감소폭이 줄어들 것으로 파악되었다. 충청권은 디스플레이, 화학제품, 철강을 중심으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대경권은 주요국의 경제활동 재개로 철강 및 자동차부품의 감소세가 점차 완화될 것으로 조사되었다. 강원권은 의료기기, 합금철을 중심으로 감소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 고용: 취업자수 큰 폭 감소 전환

4-5월 중 취업자수(전년동기대비, 월평균)는 43.6만 명 줄어들어 전분기(28.7만명)의 증가에서 큰 폭 감소로 전환되었다. 권역별로는 대경권의 감소폭이 확대되고 나머지 권역에서는 모두 증가에서 감소로 전환되었다.

#### 취업자수 증가<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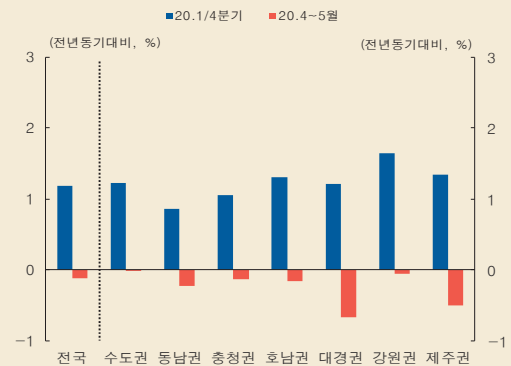
주: 1) 전년동기대비 월평균 기준  
자료: 통계청

#### 소비자물가 및 주택가격

##### (소비자물가 하락 전환)

4-5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기대비, 월평균)은 수도권에서 상승폭이 크게 축소되며 보합 수준에 머물렀으며, 나머지 권역에서는 전분기의 상승에서 하락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유가 급락으로 석유류 가격이 크게 떨어진 데다 고교 무상교육 확대 등으로 공공서비스 가격이 하락한 데 주로 기인하였다.

##### 소비자물가 상승률<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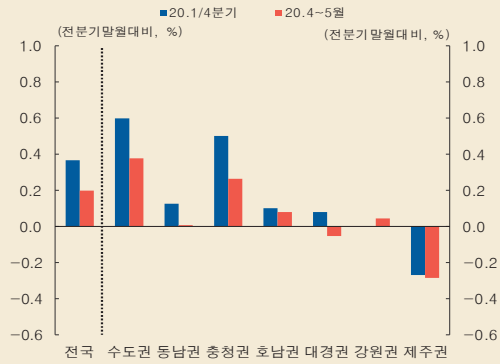


주: 1) 전년동기대비 월평균 기준  
자료: 통계청

## (주택매매가격 오름세 둔화)

4~5월 중 주택매매가격(전기말월대비, 월평균)은 수도권과 충청권이 상대적으로 높은 오름세를 보인 가운데 나머지 권역은 대체로 상승세가 둔화되거나 하락하였다.

### 주택매매가격<sup>1)</sup>



주: 1) 전기말월대비 월평균 기준  
자료: 한국감정원